

# 장수 역사전시관 건립 '착착'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장수군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에서 실시하는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공립박물관이 1개소도 없던 장수군으로는 큰 경사를 맞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장계에 건립 중인 장수 역사전시관이 2번의 낙방 끝에 최종의를 통과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2번의 부적격 통보를 통해 전시 및 유물확보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전문기관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 사전승인자료를 전면 수정·보완했다.

지난 7월에 사전평가자료를 제출했고 8월 서면평가(1차), 9월 현장심사(2차), 10월 최종심사(3차)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군은 최종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사 등 전문인력 채용계획, 전문기구 등을 통한 자문계획, 공간 활용



장수 역사전시관

용 계획, 유물확보 및 전시계획에 대한 추가내용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사전시관은 이번 사전평가 승인을 통해 전라북도에 박물관 등록절차를 마무리해 2층 규모(건축면적 1995㎡)로 개관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의 큰 경사인 만큼 역사전시관 건립과 개관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장수군이 역사문화

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장수군민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물(사진, 책 등)이나 유물 등에 대한 기증문화를 확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기증 문의는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063-350-2327)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내년도 지역문화재활용 공모 5개 사업 선정

### 무주군·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국도비 4억원 확보

무주군이 2023년도 지역문화재활용 공모사업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대표 박용수)와 함께 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선정하는 2022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인증돼 향후 3년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언론 홍보와 홍보책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문화

재 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복원기금을 활용, 문화재 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이로써 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는 한풍투와 무주 오산리 구상화 강령미암(천연기념물) 무주일일 반딧불이, 먹이 서식지(천연기념물) 무주 지점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명승)에 대한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지역맞춤형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무주 지역의 역사

와 문화유산을 단순한 교육이 아닌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앞서 군과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무주 한풍투, 적상산성, 무주향교 등 무주의 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아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확보해왔다.

2023년도에는 무주 안국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에 선정되면서 적상산과 적상산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정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선정

무주군이 2022년에 이어 이번 2023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총사업비 10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건물 대상으로 탄소중립 사업

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22년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23년 적상면 행정복지센터의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선도적으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되며, 적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내·외벽 단열, 전열교환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감축목표(32%)를 달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대상지인 무주군 적상면 행정복지센터는 2001년에 1414.86㎡ 규모로 준공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과 농협이 2023년도 농협 협력 사업으로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업용 급유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내년도 농업분야 협력사업 논의

### 진안군·농협, 간담회 갖고 농업용 급유기 지원 추진 등 의견 모아

진안군과 농협이 2023년도 농협 협력 사업으로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업용 급유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8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내년도 농업분야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행정-농협 협력사업 추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수요조사 실시와 농협분담 비율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농업용 급유기(간이 주유통 비치) 지원 사업은 신규 협력 사업으로 농협주유소를 통해 면세유 사용 농가

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단가를 단동하우스 2만2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연동하우스 9만6000원/㎡에서 13만원/㎡으로 상황 조정하며, 품목에 대해서도 상추, 딸기, 오이 품목 등을 추가로 확대에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과 농협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반영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여러과정을 통해 내년도 2월경 사업 시행 여부 및 규모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의회, 버스 완전공영제 모색 위해 정선 방문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재기)가 지난 7일 정선군을 방문해 버스공영제 추진과정과 운영방법을 설명 듣고 무진장여객 버스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모색했다.

무주군의회의 정선군 답사에는 이해양 의장과 송재기 위원장, 황인동 의원, 이영희 의원 등 의원 4명과 관계 공무원이 동행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 내 농어촌버스 운영이 주민편익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무주군과 새로운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 운영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정선군을 방문했다.

정선군은 지난 2018년부터 버스공영제를 추진해 여객회사로부터 노선과 버스 등을 양수받고 2020년부터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정선군은 버스에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영하던 과거보다 승객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원들은 이날 방문에서 정선군이 버스공개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운영방식, 고용형태, 시설현황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무진장여객에 부족한 점



이 무엇인지도 짚었다. 그리고 버스내·외부는 물론 기사대기실, 정비시설 등을 두루 둘러보고 기사들이 충분히 실만한 시설과 배차시스템을 갖춰 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에 놀란 의원들은 기사 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서비스품질로 연결돼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해양 의장은 "버스는 공공재이고 주민들이 가장 의지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무주군에 맞는 버스운영 방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고 버스의 완전공영제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 추진

장수군이 올해 산물수집된 땀감용 산물 200톤을 347구에 나눠주는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사업장 및 공공산림가꾸기 현장에서 수집한 입산물 중 땀감용 산물을 매년 한 차례 관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에서 땀감이 필요한 어르신 명단을 받아 수집산물량을 고려해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체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자도 추천 받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훈식 군수는 "산림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고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에 장수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부족한 산물량은 매년 숲가꾸기사업 대상 산주들의 입산물 등을 기증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진안군은 내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설정을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9,065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 시 일반건축물 5,935호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해 재산세 과세자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성조사는 조사요원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특성과 주택 특성에 대해 주택별로 점수 조사를 하고, 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실측한 후 현황에 따른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군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